

## 교회의 숫적성장을 위한 신학적 재조명\*

현 유 광

본고는 교회의 숫적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추구해야 될 이유와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글이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어떤 교단의 교회들은 급진적인 숫적성장을 가진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미미한 성장 또는 감소를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목회자 개개인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신학과 그 신학의 현실과 적용에 따라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다.

교회의 숫적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담고있는 백과사전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경만을 들여다 보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현실을 연구하기를 거부한다. 또 어떤이들은 전통적으로 주어진 신학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여겨 신학의 발전이나 그것의 실천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 무시하고 전통적인 것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인다.

교회는 성경의 원리에만 붙들려 있어서는 안되고, 그 원리를 다 담돌로하여 변화무쌍한 세상을 이해해야만 한다.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므로 교회를 부흥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반드시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교회성장 학자들이나 교회의 숫적성장을 이룬 사람들의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성경의 숫적성장을 이룬 사람들의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성경의 원리 위에 검토하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글은 필자와 교육받아온 들의 일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의 주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추측한다. 필자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성경을 기초로 이러한 의견들이 교환되고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교회에 더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믿는다. 개혁된 교회와 그회원인 필자는 성경이 최종의 권위를 가짐을 믿는다.

교회가 숫적성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추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의 숫적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회성장학자들은 많은 전략과 방법들을 개발하여 왔다. 이러한 전략과

방법들은 소위 ‘거룩한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어졌고 사용되어져,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거룩한 실용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괄목할 만한 숫적성장을 가져온 반면에,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백안시하는 교회들은 숫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숫적성장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가? 교회는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에는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하나, 그 원리를 기초하여 일반 학문을 사용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경에 기초한 신학의 검증과 발전이 요구된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의 숫적성장에 관계된 신학에 있어서 그러하다.

### 1. 성경은 교회성장의 원리는 제시하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 다루지 않고 있다

숫적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교회성장의 원리는 제시하나 교회의 숫적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의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학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와 반면에 숫적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교회성장의 원리를 찾는데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실용적인 방법<sup>2)</sup>을 찾는데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단적인 예는 이종윤 외 2인이 쓴 「교회성장론」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sup>3)</sup> 이 책은 총 313면의 분량의 책인데, 그 중 2/3가 되는

200면이 ‘성경적 교회론’이라는 제목 아래 교의학의 입장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교회구조와 성경적 성장원리’, ‘교회성장신학과 한국교회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성장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와, 교회의 숫적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평가하고, 과거 한국교회의 성장의 이유를 분석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이 책에서 교회의 숫적성장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전략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교회의 숫적성장을 이루는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회성장학자들은 문화인류학과 사회학, 심리학과 경영학, 그리고 통계학과 같은 일반 학문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적인 학문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거룩한 실용주의’ 아니 실용적인 전략과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counsel)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그 경륜은 선하고 필연적 사고활동의 결과에 의하여 그 성경에서 이끌어 내어질 수 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라는 이름으로, 또는 인간의 전통이라는 명목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되어 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이해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과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된다. 이러한 가르침들에 관한 여러 상황들은 항상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 규칙에 근거하여 자연(이성, nature)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필자역).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원리를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의 성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성경 이외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1장 6절 뒷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 특수성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들이 구체화되고 실용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가능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 규칙과 이성의 빛, 그리고 신자의 분별력이라는 조건 아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맥퀼킨(J. Robertson McQuilkin)은 그의 책 「교회성장평가」에서 일반 학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고와 함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행동과학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궁극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성경과 그 가정에서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적 계시로 나타나지 않은 분야에서는 경험적인 통찰력을 구하는 것이다.”<sup>4)</sup>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들이 숫적인 성장면에서 그리 탁월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개혁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의 선교사로서 스리랑카(Sri Lanka)와 멕시코에서 활동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로저 그린웨이(Roger S. Greenway)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자신과 그가 속한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

어찌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25,000명을 앓게 하는 예배당을 세우는 (개혁)교회가 없는가? 개혁신학의 이런면이 교회성장에 해로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브라질 포 크라이스트>(Brazil for Christ) 같은 운동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개혁교회 선교사들과 선교를 위한 제반 일을 수행하는 선교정책 입안자들,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띄웠으나 그들의 노력에 비해 아주 느린 성장밖에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찌르는 바늘같은 질문들인 것이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롭게 역동적인 종교운동은 개혁교회의 성장을 창백한 빈혈환자의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sup>5)</sup>

개혁교회가 교회성장에 있어서 역동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필요 충분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교회의 숫적성장에 대해서 몇가지 지침은 제공하셨

으나 모든 지침을 계시해 주신 것은 아니다. 숫적성장의 전략과 방법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의 일꾼들의 손에 위임하셨다.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안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나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땅에 묻어 놓은 것처럼,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장 가까이에 위치한 항구에서 생긴 일이다. 그곳에서 ‘한신호’라고 불리는 한 큰 배가 있었는데, 그 배에는 그물과 냉동시설과 기타 모든 시설을 훌륭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 배의 선원들은 고기잡이 이론에 대해 많은 강의를 받았고, 고기잡이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그리고 학문적으로 토론하였다.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 해양 식물학 아카데미의 교수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고기잡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께서 고기들을 그물 안으로 몰아 보내주셔야 하므로 기도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들 중 몇몇은 이 가르침을 따라 기도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 배의 선원들은 고기잡이의 예외와 전망에 대해 논쟁하면서, 고기들이 겁먹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배들이 출어할 때는 항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 젊은 선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일차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고기잡는 역사와 원리를 바로 정립하고 알므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논쟁에 논쟁을 거듭하는 동안 다른 어선들은 날마다 아침 일찍 바다에 나가 저녁 늦게까지 고기를 잡아서 돌아왔다. 한신호의 승무원들과 선원들은 다른 어선들의 작업에 대해 자료를 얻어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그들의 어선은 속도는 빠르지만 엔진소리가 너무 크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군 탐지기는 비윤리적이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끼는 지나치게 자극적이다.” “그들은 고기는 잘 잡으나 보존기술이 나빠서 잡은 고기를 많이 놓쳐 버린다.” “넓은 바다 먼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가까이에 있는 고기만 잡아도 충분하다.” 이러한 연구는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한신호는 계속 항구에 묶여만 있었고 출어는 연기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젊은 선원이 선장과 다른 선원들 앞에서 불평을 터뜨렸다. “왜 우리 배는 고기가 많은 넓은 바다를 놓아두고, 항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은 다른 젊은 선원들을 흥분하게 하였고, 더 강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왜 우리는 항상 이곳에 묶여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고기잡이 이론들은 배우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 고기를 잡지는 않습니까? 다른 배

들은 우리처럼 좋은 이론이나 장비를 못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완전하나마 우리가 결코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은 젊은이들의 생각이 옳다고 동조하였으나, 다른 이들은 입조심하라고 몰아 붙였다. 이런 비판에 떠밀리어 한신호는 한차례 출어하여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다. 그러나 고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고기를 잃어버렸고, 일부의 고기는 냉동상태가 좋지 않아 상해 버렸다.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오늘도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한신호는 이 위원회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항구에 머물러 있어야 할 형편이다.<sup>6)</sup>

교회와 신학은 반드시 성경의 원리를 기초로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성경적 원리는 중요하고 그 원리의 적용은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옳지 않다. 적용의 측면이 원리의 기초를 떠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리만 있고 적용이 없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변천하는 시대와 사회의 상황에 대해 눈을 감고 무관심할 때에 교회와 신학은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충실한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 따라서 앞의 비유에서 보는 대로 교회와 신학은 성경을 기초하여 새로운 시대와 사회 상황에 적합한 교회의 숫적성장을 위한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2.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과 교회의 행위가 자주 성경의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

레빈(J. Levine)과 머피(G. Murphy)가 1943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학습과 망각”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들은 성적이 비슷한 대학생들을 친공(親共)산주의 그룹과 반공(反共)산주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다. 이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반공산주의 서적들과 친공산주의 책들을 5주간 동안 읽게 하였다. 그리고 매주간, 읽은 책들에 대해 시험을 하였다. 그들이 발견한 결과에 따르면 반공산주의자들은 반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책들을, 친공산주의자들은 친공산주의 책들의 내용을 보다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종시험에서 반공주의 학생들은 반공주의 서적에 관한 시험에서 평균 52점을 얻은 반면에 친공산주의 학생들은 단지 16점을 얻었다. 이와 비슷하게 친공산주의 학생들은 친공산주의 성향의 서적에 관한 시험에서 반공산주의 학생들보다 월등한 성적을 올렸다고 한다.<sup>7)</sup>

위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이해(先理解, Vor-Verstaendnis)나, 또는 그가 그 해석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이나 불이익 등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의 사물에 대한 이해나 해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 누가 무어라 해도 양보해서는 안되는 사실과 이에 대한 해석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선이해나 이해(利害)관계에 따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해석이나, 아

전인수(我田引水)적 해석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객관적인 진리로써 성문화된 계시 곧 성경을 허락하셨다. 사람들은 중생한 양심과 이성을 사용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진리는 시대의 변천이나 지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거부하므로 성경의 삼위일체의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되심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대와 지역의 조건을 달리하면서도 이 진리를 신실하게 받아들인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성경의 증거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에 있어서 각 사람의 성장배경이나 교육배경, 즉 문화적 배경과 현실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도 타협이나 양보없이 변증하고 그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받느니라”(눅 7: 35)는 말씀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이라는 차원이 아닌, ‘어느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구(西歐)의 토양에서 형성된 신학

이 동양 특히 한국이라는 토양에 적용되어질 때에, 때로는 합당치 않는 경우가 생긴다.

서구의 개혁주의 신학, 교회, 그리고 삶의 방식들이 20세기말에 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원불변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들은 서구적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구교회의 유산(遺産)들을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므로 그 열매가 미미하든지 또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특별히 교회의 숫적성장의 측면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 사회는 중세를 거쳐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또한 종교개혁 이후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출생과 더불어 교회에서 베푸는 유아세례를 받아 교회원이 된다. 그들의 죽음은 신부나 목사가 주관하는 장례식으로 이어진다. 비록 이들이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명목상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신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교회의 숫적 성장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들의 성경과 사회에 대한 선이해는 교회의 숫적 성장에 대해 눈을 가리우게 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사회가 이미 이교화(里敎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교회의 숫적 성장에 대한 신학과 방법의 출발은 인도를 비롯한 선교지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분명히 두지만 또한 전통적인 의식을 탈피하여 현실을 보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보다 좋고 많은 결실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개종자들을 얻고자 한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전하므로 선교지의 주민들이 그를 개인적인 구주와 주로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선교의 열매인 개종자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개발하며 그것들의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 가운데 교회의 숫적성장에 대한 신학과 방법이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이다. 이러한 교회성장의 신학은 원래 선교신학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61년 맥가브란이 미국 오리건 주의 유진에 위치한 노스웨스트 크리스찬 대학에서 교회성장 특별강좌를 가지므로 본격적으로 교회의 숫적성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신학으로 발전되었다. 맥가브란에 의해 주도된 교회성장학은 196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파사디나(Pasadena)에 위치한 플러신학교로 그 중심지를 옮김으로 꽃을 피우게 되었다.

미국은 건국시부터 유럽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었으나, 1960년대에 일어난 인종차별철폐운동의 결과로 많은 동양계 이민들이 유입되면서 소위 인종적으로 '용광로'(melting pot)라는 이름이 더 걸맞게 된 형편이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은 도시중심의 생활양식에서 탈출하여 대도시 교외에서 거주하는 생활양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 때 미국은 또한 자유주의 신학의

등세와 더불어 산업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미국 교회 지도자들의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자각은 교회성장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1970년대에 교회성장학이 제시하는 교회성장신학과 그 방법과 전략들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숫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이러한 교회성장학의 영향을 직접 받아 교회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교회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일제청산과 6·25로 인한 혼란 그리고 신학적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황에 있었고, 이에따라 구원의 기쁨이나 전도, 나아가 선교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때에 많은 선교단체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대학생 선교단체가 단순한 복음을 통한 구원초청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제자양성을 하는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단체들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라는 구호를 외치며 교회의 숫적성장의 기반도 조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회 내에서도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은 미국의 교회성장학과 상관없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몇몇 목회자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통적인 신학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른 접근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그

리스도에게와 교회로 초청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적중하여 이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숫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그 실증적인 결과를 통하여 서서히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국내에서 일어난 이러한 성장운동은 곧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제자훈련의 방법과 미국의 교회성장학의 영향을 받아 급속도로 한국 교회 전체에 큰 충격과 큰 변화를 일으켰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폭발적인 교회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이러한 전략과 방법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교회의 숫적성장이 둔화 내지는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교회의 숫적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한 시도에 대해 비판만 하던 사람들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교회의 숫적성장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종종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 ‘핑잡는 것이 매’라는 식의 실용주의적 방법이나 소위 세 가지 B 즉, 교인숫자(baptism), 건물크기(Building), 재정규모(budget)의 증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식의 목회를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러한 자세는 비성경적인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핑도 못잡는 매’가 되어 있는 신학과 교회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교회와 신학은 그 신학적 방향이 ‘핑을 잡을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하고, 교회의 숫적성장을 위한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이 있어야 함을 자각해야 한다.

신학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관심이나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신학의 발전은 이단의 발전과 더불어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박형룡은 이렇게 말한다.<sup>9)</sup> “금일 교의신학의 내용이 서론, 신론, 인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의 순서로 구분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교의 발전의 역사적 순서가 또한 그러하다. 숫적성장을 위한 신학과 교회의 전략과 방법은 과거의 것에 얽매어 있어서는 안된다. 눈과 마음을 다시 한번 씻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을 읽으며, 새로운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가운데 교회의 숫적성장을 위한 신학은 새로워져야 하며,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은 개발되어져야 한다.”

오늘날 숫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교회들은 그린웨이가 겹겹하게 지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결함이 있다고 간주한 신학과 조직을 가지고서 어떤 교회가 이론적업적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많은 경우에 있어 개혁주의 선교업적은 보잘 것 없다는 점과 복음 전파에 관한 그들의 신학과 조직이 훨씬 우리들의 것을 능가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배우고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아마도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해온 것, 우리가 하지 못한 것, 세계에 있어 복음의 자유로운 전로를 방해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sup>9)</sup>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하는 점에서 탁월



함을 가진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이 항구에 묶여 있는 배처럼 성경의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면에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만 한다. 개혁주의자들은 변화가 많은 시대와 사회를 보다 성실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현실 가운데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 보며, 이에 따르는 시행착오를 통해 방법이나 전략 개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경은 교회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필요 충분한 원리는 제공하고 있으나,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른 적용과 효과적인 방법을 창출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본고는 앞의 실천 “교회가 숫적성장을 추구해야 할 성경적 근거와 현실적 적용”에 이어지는 글임

- 1) Polos Miles, *Church Growth: A Mighty River* (Nashville: Broadman Press, 1981), 79쪽.
- 2) 필자는 ‘실용주의’와 ‘실용적’이라는 말을 구분한다. 실용주의는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도 역시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실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를 하나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실용적’ 태도는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다.
- 3)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엠마오, 1993)
- 4) 로버슨 맥퀸, 「교회성장 평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88쪽.
- 5) 간하배, 「교회성장의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1), 88~89쪽.
- 6) 간하배, 「복음전도와 사회정의」 (서울: 엠마오, 1984), 27~29쪽 참고.
- 7) Jim Wilhoit, 「현대기독교교육」,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125~126쪽.
- 8) 박형룡, 「교의신학-서론」 (서울: 백합출판사, 1964), 30쪽.
- 9) 간하배, 「교회성장의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1), 93쪽.

#### 참고문헌

- 간하배, 「교회성장의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1.  
 간하배, 「복음전도와 사회정의」 서울: 엠마오, 1984.  
 박형룡, 「교의신학-서론」 서울: 백합출판사, 1964.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엠마오, 1983.  
 J. Robertson McQuilkin 「교회성장평가」 김보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Delos Miles, *Church Growth, A Mighty River*. Nashville: Broadman Press, 1981.  
 Jim Wilhoit 「현대 기독교교육」 신서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